

개방화 시대와 충남농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권용대 |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I. 서언

DDA 협상, 한·칠레 FTA에 이어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 농업은 세계적 경쟁수준에 입각하여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방화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범위와 폭이 커지게 되면 일부 틈새 시장형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세한 우리 농민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발굴하지 못하고 선부르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한 것이 작금의 농업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우리 농업이 개방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물결이 비교역적인 특성을 가진 농산물시장에도 밀려오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 정보, 지식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무한경쟁적인 비즈니스를 벌이면서 국가간 경계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통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계에 관한한 국가라는 인위적 장벽을 해체하여 범지구적인 시장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지구촌을 단일한 사회 경제체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세계화로 볼 수 있다.

농업분야도 1994년에 UR협정을 맺은 이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자유화라는 명분하에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를 통한 세계화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천정가격효과에 따른 농산물의 지속적인 가격하락, 그리고 만성적인 소득저하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농산물시장의 세계화는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시장 접근성의 문제와 농산물 가격의 하향화를 가져와 수지악화 → 소득감소 → 부채증가 → 농업퇴출이라는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도 농산물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충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비중이 1995년 14.1%에서 2005년에 8.4%로 감소한 가운데 농가인구도 641천명에서 437천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충남은 아직도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전국 2위의 농업생산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3위, 쌀 생산 2위, 경지면적 3위 등 각종 지표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농업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유지해나면서 보다 차원높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유례없는 변혁기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변혁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야 변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개방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아 충남 농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역 농업인과 관련단체들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가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개방화시대를 맞아 충남 농업의 현 위치와 변화 동향을 살펴본 후 미래의 충남 농업을 이끌어 나갈 발전적 전략과 과제를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II. 개방화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

우리나라는 1989년 GATT 국제수지보호조항(BOP) 졸업과 1995년 UR 농업협상의 이행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개방화 일정을 보면 2004년 쌀 재협상과 한·칠레 FTA 발효이후 한·싱가폴, 한·아세안 FTA가 이미 체결되었다. 금년 4월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었으며 한·캐나다 FTA, 한·EU FTA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들은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생산 증가에다 수입 농산물까지 가세하면서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업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소위 농업 트레드 밀(Agricultural Treadmill)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농산물의 연평균 실질가격 상승률은 1.4%(1986년~1990년)에서 -1.0%(1994년~2002년)로 하락하고 실질농업소득 성장률도 동기간 동안 연 평균 6.9%에서 -1.7%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렇듯 개방화 이후 우리 농업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으로 인한 소득침체와 농가부채의 부담증가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

특히 금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개방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농가피해를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산물이 입는 피해액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6,698억원 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서 연 평균 4,664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는데 2009년 205억원, 5년 후 671억원, 10년 후 2,811억원, 최종년도인 2023년에는 2,147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돼지고기는 이행 첫 해에 298억원, 2014년 1791억원, 관세철폐 시점인 2018년에 1,874억원 생산액이 감소하고, 닭고기는 이행 5년차에 488억원, 관세철폐 연도인 10년차에는 9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제품의 경우 이행 5년차에 416억원, 혼합분유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에 594억원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과수산업을 보면 감귤의 경우 이행 5년차인 2013년 457억원 생산액이 감소해 관세철폐 시점인 2015년에 6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도 이행 5년차에 202억원에서 15년차에 778억원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단 10년차부터 농산물 셰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입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배는 이행 초기 10억원 감소에서 2023년 325억원으로 감소액이 커질 전망이다.

채소 및 특작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이행 초기 미국산 수입 증가가 적어 생산액 감소가 미미하고, 후기에는 농산물 셰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적용돼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양념채소류의 예상 생산액 감소는 이행 5년차 77억원에서 15년차 217억원 규모다. 충남이 주산지인 인삼의 경우 미국산(화기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가공제

〈표 1〉 한·미 FTA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

(단위 : 억원)

구분	연평균	1~5년차	6~10년차	11~15년차
축산	4,664	1,981	5,319	6,691
과수	1,551	625	1,575	2,452
채소·특작	368	191	407	507
곡물	115	28	111	206
합계	6,698	2,825	7,412	9,85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계속적인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에 의해 농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농가소득도 침체상태에 빠지면서 농가인구는 2005년 현재 343만명으로 총인구의 7.1%까지 감소하였다. 앞으로 개방화가 더욱 확대된다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200만명 이하 즉 4% 미만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중에서 3분의 1은 어떤 식으로든지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농업의 개방화는 국내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소득감소를 초래하면서 농업인구와 농업생산액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 개방화가 농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농업 개방화는 농업생산구조를 과거 식량작물 중심에서 시장 경쟁력이 있고 소득기여도가 높은 성장 작목을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농, 가족농 위주로 구성된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득규모와 경영구조 측면에서 상층농과 하층농으로 나누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1994년~2002년 동안 농가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 20%계층의 소득격차가 5.5배에서 7.1배로 확대되었다. 동기간에 도시가구의 최상위·최하위 소득 20%계층의 소득격차가 4.4배에서 5.4배로 확대된 것보다 더 농촌가구의 빈부차가 더 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상층농이 영농규모화를 통하여 전업농 체제로 변화하면서 대규모의 상업화된 농가들이 우리 농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의 영농 구조하에서는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규모를 키우고 돈과 기술을 투입해야하는 방향으로 농업경영의 질적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경영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방식으로의 접근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에 농업경영의 시스템이 제조업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경영전문화의 과정에서 종자, 종묘 공급, 육묘, 재배, 수확 등 생명공학과 전자공학을 활용한 자본집약적 시설 투자 및 기계화가 촉진되고 계획생산, 계획판매를 실천하는 농업 경영인들도 증가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개방화로 인한 영농구조의 두드러진 변화는 겸업농가가 줄어드는 반면에 전업농가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부업농의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농구조의 규모화 및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영농형태나 작목 선택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빠

르게 전환하면서 농가들이 상업농과 비상업농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방화이후 농산물 소비동향을 보면 농산물의 유통과 출하가 전문화 규모화 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농산물 소비행태를 보면 수입 개방화로 다양한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소비자들 가격보다 맛과 안전성, 브랜드 등 농산물의 선호패턴이 다양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마케팅전략, 고품질화, 비용절감 등 효율적 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산지에서는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시설확충으로 상품성을 갖춘 농산물의 출하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 등장으로 농업인의 출하선택권과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필수농산물인 쌀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채소, 과일, 육류의 소비는 증가하는 등 구매형태도 다품목 소량 구매 경향을 보이고 있고 품질도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다. 즉 공급과잉시대에는 농산물의 소비도 패션과 품질을 따지는 브랜드화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농가들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신속하게 적응해나가면서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업적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화,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들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조직을 결성하고 소비시장의 신 유통 동향에 대응하여 판매자의 시장 교섭력 강화 및 브랜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간의 연합화된 대규모 판매조직을 결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 촉진에 대한 법의 제정을 계기로 도농균형 개발 차원에서 교육·의료·복지인프라에 대한 투자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도시화율이 80%를 넘어 도시민들이 농촌의 어메니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1사 1촌 운동, 5도2촌 등 농촌이 생명·환경·관광·여가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농촌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수도권과 근접한 입지성을 살린 농촌 체험형 그린투어리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농정분야를 보면 UR협상 이전까지는 정부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경보호조치를 통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고 농산물 가격 지지 및 소득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농업성장과 농가경제의 발전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이후 정부의 수입조절에 의한 국내 농산물의 보호수단이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화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시장 경쟁력의 강화라는 농업성장정책과 함께 경쟁에서 탈

락되는 농가들에 대한 소득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개방화 시대의 농정이 바뀌면서 농정의 방향도 질적 생산과 신시창출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호중심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농민을 일방적 보호의 대상에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농업인이 선택 가능한 전문화·겸업·탈농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를 농업생산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 경영체를 집중 육성 하고 우수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지·자본·기술 등을 집중화하고 농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소득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영농후계자와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40세 미만의 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것이다. 이들에게 경영능력을 고려한 최적의 농업규모로 농업을 전문화하고 기술 집약 농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소득을 타 산업과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같이 농정 목표가 바뀔에 따라 정부는 우리 농업이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 전환과 고품질·안전식품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확충, 농외소득 증대, 부채경감 등 생활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촌은 살터, 일터, 쉼터 정주공간으로서 선진국형 농촌을 건설하는데 역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FTA이행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한 4대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DDA농업협상·자유무역협정·농가부채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III. 개방화에 따른 충남농업의 변화 동향

1. 충남농업의 위상과 현황

충남 농업의 입지 조건을 보면 지형적으로는 차령산맥에 의해 동서로 구분되어 동고서저의 특

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발 100m 이하의 평야지가 총 면적의 65.8%를 차지하고 있고 100~500m 구릉지는 34.1%, 500m 이상의 산지가 불과 0.1%로서 평야와 구릉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농사에 필수적인 관개조건을 보면 금강, 안성천, 삽교천의 3대 하천이 있는데 이들 하천을 농업용수로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충남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지대로 발달해왔다.

경지면적은 2006년 현재 247,590ha로써 전국경지 면적의 13.8%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탄한 평야지형이 많아 경지율은 29.5%로 전국 평균 18.6%보다 10.9%가 높고 제주도의 32.0%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경지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지면적 중 답 면적이 183,161ha로 답율이 73.9%에 달하여 전북 다음으로 논 면적 비율이 많다. 이렇듯 농업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충남은 국가적으로 주요 농업 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시장에 근접한 입지를 살린 성장형 작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농가소득도 타 지역에 비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표 2>에서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1년 이후 전국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 2005년 현재 32,215천원으로 전국 평균 30,503천원보다 8.9%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제주,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농업소득의 소득의존율은 40%이고 농외소득 비율은 29.5%로서 전국 평균 38.7%와 32.4%보다 낮는데 이는 타도보다 충남지역의 농가들이 전업형 농가들이 많아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충남의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농가소득 (a=b+c+d+e)		농업소득(b)		농외소득(c)		이전소득(d)		비경상소득(e)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금액	비율 (e/a)		
2005	충남(A)	33,215	40.0	13,239	29.5	9,820	3,918	6,238	11.7	11.7	18.8
	전국(B)	30,503	38.7	11,815	32.4	9,884	4,078	4,725	13.4	13.4	15.5
	A/B(%)	108.9	103.3	112.0	99.4	91.0	96.1	87.3	132.0	121.3	121.3
2001	충남(A)	23,671	48.4	11,453	31.1	7,353	4,865	20.5	n/a	n/a	n/a
	전국(B)	23,906	47.1	11,266	32.7	7,829	4,811	20.1	n/a	n/a	n/a
	A/B(%)	99.0	102.7	101.7	93.9	95.1	101.2	101.9	n/a	n/a	n/a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충남지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쌀은 865천톤이 생산되어 전국의 18.5%를 차지하여 전남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다. 이 같은 쌀 생산량은 면적 비율 대비 16.4%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서 이는 충남 쌀의 단보 당 수확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은 과채류와 과일의 주산지이기도 한데 딸기와 수박은 전국 2위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으며 배는 2위, 사과와 배는 4위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 충남 주요 농산물의 생산 현황 (2006년)

구분	단위	전국(A)	충남(B)	(B/A)%	전국순위	
경지면적 합계	ha	1,800,470	247,590	13.8	3위	
미곡	면 적	ha	955,229	163,398	17.1	2위
	생산량	M/T	4,679,991	865,426	18.5	
수박	면 적	ha	20,553	4,240	20.6	2위
	생산량	M/T	778,374	188,586	24.2	
딸기	면 적	ha	6,813	1,646	24.2	2위
	생산량	M/T	205,307	47,226	23.0	
고추	면 적	ha	58,703	6,088	10.4	4위
	생산량	M/T	352,966	36,964	10.5	
마늘	면 적	ha	28,594	2,181	7.6	5위
	생산량	M/T	331,379	20,525	6.2	
사과	면 적	ha	28,312	1,448	5.1	4위
	생산량	M/T	407,621	31,759	7.8	
배	면 적	ha	20,656	3,336	16.2	2위
	생산량	M/T	431,464	83,790	19.4	
포도	면 적	ha	19,248	1,866	9.7	4위
	생산량	M/T	330,049	30,136	9.1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충남의 과채류 생산 추이를 보면 1999년도에 414천톤을 생산하여 정점에 이른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UR협정 이후 과채류가 고소득 작물로 각광을 받아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오다가 2000년 이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과채류 농가들이 경작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참외의 생산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수박, 딸기, 토마토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품목들이 충남의 주작목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 배추로 대표되는 엽근채류는 노지채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수요가 년 중 평균화됨에 따라 시설재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시설 배추와 무의 경우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금치는 3위를 차지하여 충남이 최근들어 시설 엽근채류의 주산지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소비시장이 커지고 물류 교통망이 확대되면서 충남은 경기도를 능가하는 전국 1위의 엽근채소류의 주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고추, 마늘, 양파로 대표되는 조미채소류는 공급조절이 어렵고 해마다 가격등락폭이 심하여 소득불안정이 높은 작물이다. 주로 영호남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충남은 생산량 순위가 4.5위권에 머물러 중간정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생강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1위의 주산지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마늘 주산지인 서산 육쪽 마늘이 생강과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어 생산여건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의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순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유망성장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미채소류는 중국산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겠지만 충남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생강, 파 등은 수입개방화에 대처해 나갈 전략이 마련될 경우 지역의 유망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02년도에 충남의 배 생산 비율이 20.4%를 차지하여 전국 1위의 주산지이었다가 2006년에는 전남에 이어 2위로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배가 전국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성환, 천안을 중심으로 지역 농민들이 배의 재배면적을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는 한미 FTA 협정으로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충남의 축산 농가는 전체농가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권인데 규모화와 기업농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충남이 전국적인 축산 중심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축종별 순위를 보면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 전남에 이어 3위, 젖소, 돼지, 닭은 1위인 경기도 다음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도내에서 한육우의 주산지는 홍성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예산, 공주 순이다. 젖소는 천안시가 도내 1위의 산지이고 예산, 아산, 당진군의 순서로 사육하고 있다. 돼지사육은 홍성군이 충남의 22.3%를 차지하여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은 당진군이 1위의 주산지이다.

〈표 4〉 충남의 가축사육두수 (2005년)

구 분		단위	전국(A)	충남(B)	전국대비 (B/A)%	비 고
한우	농가수	호	192,124	22,265	11.6	경북 1위, 충남 3위
	두수	마리	1,818,549	236,999	13.0	
젖소	농가수	호	8,923	1,415	15.8	경기 1위, 충남 2위
	두수	마리	478,865	77,569	16.2	
돼지	농가수	호	12,290	1,794	14.6	경기 1위, 충남 2위
	두수	마리	8,961,505	1,636,243	18.3	

자료: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충남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면 2003년까지는 해마다 감소하다가 2004년 116백만불을 달성하여 2003년도 보다 37.6%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05년에는 122백만 불로서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하여 수출이 점차 증가추세를 회복하고 있다. 2005년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인삼류는 충남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2005년도에 전년도 보다 3,984천불이 증가한 67,442천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였다. 배는 2005년 19,927천불을 수출하였으며 미국 7,190천불, 동남아 12,388천불, 기타지역 349천불을 수출하여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화훼류는 충남의 새로운 수출 주력품으로 2004년 7,724천불(05년 7,819)을 수출하였으나 환율 및 고유가 등으로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였다.

〈표 5〉 충남 농수산물의 수출추이

(단위: 백만불)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139	119	101	84	116	122
증감율(%)	△27	△14.3	△15.5	△16.8	△37.6	△5.8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만의 수출실적은 102 백만불로서 국가전체 농산물 수출액 2,222 백만불의 4.6% 수준이며 9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로서 충남 농업의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충남의 수출 품목은 인삼류, 배, 화훼류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소수의 국가에 편중 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이다.

〈표 6〉 충남 농산물의 국가별 수출실적(2005년)

(단위:천불)

구분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기타	합계
채소	1,851	167	0	697	6	2,721
김치	3,645	439	0	70	191	4,345
과일	34	7,191	242	13,128	75	20,670
화훼	1,830	2,103	3,722	69	0	7,724
인삼	16,633	12,508	5,642	31,882	778	67,443
합계	23,993 (23.3%)	22,408 (21.8%)	9,606 (9.3%)	45,846 (44.6%)	1,050 (1.0%)	102,903 (100.0%)

자료: 충남도청 농정과

2. 개방화 이후 충남농업의 동향

개방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수입농산물의 급증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농업 비중이 큰 충남도 개방화에 따른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지역 농민들이 국내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에만 신경을 쓰면 되었으나 이제는 외국의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을 의식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UR 협상 이전에는 지방정부도 지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농산물의 국내 시장 유통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갈수록 지방정부의 이러한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4년 쌀 재협상과 한·칠레 FTA를 거치면서 농정의 방향이 평균적인 농가지원보다는 경쟁력있는 농업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충남에서도 영세 소농들의 탈농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화에 따른 충남 농업의 뚜렷한 변화를 보면 농업 GDP 및 농가인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농도인 충남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율은 1990년 35.9%에서 2005년 8.4%로 줄어들었으며, 농가인구도 43.3%에서 26.7%로 감소하였다. 지역농업경제의 침체와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유출로 농촌의 사회 경제적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농가인구도 1989년에 888천명이었던 것이 2005년 현재 437천명으로 절반이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농업 비중과 인구가 감소하면서 충남지역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30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

한 가운데 충남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전남의 14.1% 다음인 12.8%로써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특히 청양군과 서천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고령화 인구비율이 각각 22.1%와 20.2%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미 FTA에서 비록 쌀 개방은 피했다 하더라도 충남의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가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홍성, 천안, 논산을 중심으로 축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 FTA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한우 고기 값은 크게 떨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충남의 과수농가도 마찬가지다. 칠레산이 쏟아져들어 올 때도 국내 과일가격은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사과·복숭아·포도 등의 과일은 국내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과일 가격도 하락하면서 과수 농가의 소득피해도 커질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2006년도에 한미 FTA에 따른 충남 농업의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쌀을 제외할 경우 1,425억원으로 계산한 바 있다. 한편 한미 FTA타결 직후 충남도가 전국 농업 생산액 감소액을 근거로 농가인구 비율로 계산한 도내 농업 피해액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23년까지 연평균 1,415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분야는 1,027억 원으로 전체 생산피해액의 73%를 차지했다. 과실 분야는 259억 원의 감소액이 추정됐으며, 채소특작 분야 63억 원, 임업 분야 49억 원, 곡물 분야 17억 원 감소로 각각 나타났다.

〈표 7〉 한미 FTA이후 충남의 농산물 생산감소액

(단위 : 억원, %)

순위	품목	연간생산액(2004년)	생산감소액	감소비율(%)
1	콩	346	293	84.8
2	돼지	3,154	197	6.2
3	닭	1,411	180	12.8
4	한우	1,262	158	12.5
5	포도	762	132	17.3
6	사과	510	127	24.9
7	배	769	97	12.6
8	인삼	1,254	70	5.6
9	고추	916	50	5.6
10	딸기	1,605	40	2.5
11	토마토	908	27	3.0

12	마늘	508	20	3.9
13	복숭아	125	15	12.0
14	팥	9	7	77.8
15	녹두	5	4	80.0
16	양파	33	2	6.1
17	땅콩	25	3	12.0
18	메밀	1	1	100.0
19	감자	13	2	15.4
총생산감소액		13,616	1,425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한·미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효과와 대책, 2006

그러나 개방화가 충남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개방화라는 도전을 기회로 삼아 충남 농업만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지역의 장점과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면 충남농업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충남은 높은 경지율과 풍부한 용수, 뚜렷한 4계절 등 농업생산 환경이 양호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특히 과수와 화훼류는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 있다. 여기에 생명공학, 전자공학 등 첨단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합하면 충남의 농업은 토지 제약조건을 넘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소득 증가, 탈산업 웰빙 사회의 진입으로 안정성, 기능성, 편의성 위주로 농산물의 소비패턴에 변화중에 있고, 맛, 당도, 모양, 포장, 규격화 등 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을 살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첨단기술, 정보, 지식을 응용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등장한다면 충남 농업은 지역농업의 틀을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갖고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IV. 충남농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1995년 WTO의 발족이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이 미국과 EU 등 선진농업국에 종속되느냐, 또는 비교우위를 살린 농업구조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느냐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농업 개방화라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우리 농업은 21세기 선진농업국으로 거듭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한 농업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충남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구조로 체질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영농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경제의 안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충남 농업도 지역농업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개방화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토지면적 보다는 기술과 경영능력에 더 중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가격보다는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전략과 함께 값싼 수입 농산물은 과감하게 들여오는 농산물의 산업내 무역이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충남농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권역별 특화농업의 육성

충남의 농업권역을 기후조건, 지형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작물결합유형에 의한 농업지대를 기초로 하여 구분하면 5개 권역 즉 도시근교 농업지대, 남부평야 농업지대, 서부 준산간 농업지대, 서해안평야 농업지대, 북부 농업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충남의 농업지대를 작물 유형의 결합 형태와 입지환경을 연계하여 농업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특화시킨 농업개발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산, 공주시는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이면서 산지지형이 많아 충남의 농업지대중 경지율이 가장 낮으며 경종작물의 생산비중이 적고 시설채소, 과수 등 전작 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농이 발달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근교 상업농지대로 육성한다. 이 지역은 일교차가 큰 산지지형의 특성을 이용한 특작물(인삼, 버섯)과 시설원예, 시설과수, 관상수의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농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아직 대전시의 농산물 수요가 지역의 생산 능력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충북의 옥천, 청원, 영동군이 대전 소비시장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권역을 대전권 시장에 국한 하지 않고 수도권과 영남지역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기, 예산, 천안 및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2,3차 산업과 비농업인구의 비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

역은 차령산맥 근접지역으로 대규모 구릉지가 많고 답 면적 비율이 높으므로 북부 광역근교 농업지역으로 육성한다.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여 예산의 사과, 천안의 배 등 과실류와 한우, 돼지 등 축산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산시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고 수도권 대학의 이전 및 고속전철의 통과로 향후 이 지역에 농산물 소비인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에 부응하는 농업개발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및 신흥 공업도시의 소비시장을 목표로 한 시설원예단지의 조성 및 도시 근교형 전업농을 육성한다면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서산, 태안, 당진, 보령은 넓은 평야지대와 서해안에 인접하여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으며 대규모의 간척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과 임해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지역농업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 지역은 경지율이 높은 평야 지대로 전통적으로 미곡생산이 중심이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평야지를 이용한 밭작물(마늘, 생강) 지역과 화훼단지의 육성이 지역적인 여건상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보령시, 태안군의 경우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이 인접한 입지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6차형 서비스 농업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넷째, 논산, 부여, 서천은 전북 지방과 인접한 충남 남부지역으로 금강 하류를 중심으로 넓은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미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 대도시 경제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높은 현금작물의 생산비중이 낮아 농가소득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금강주변의 비옥한 충적토지대를 이용하여 시설 원예, 특작단지를 조성하며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단지의 조성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청양, 홍성군은 차령산맥이 관통하는 산지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인접한 대도시 경제권이 없어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농업 지역으로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산지 지형에 적합한 지역특화 작목의 발굴과 함께 충남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 가공하는 농산물 교역센터 및 농산물 가공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종작물 보다는 축산 및 특작물(청정 무공해 농산물, 고랭지 채소, 버섯류 등)의 재배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여건상 유리할 것이다.

〈표 8〉 충남 권역별 농업특화전략

농업권역	해당 시군	입지특성	특화전략
도시근교 농업지대	금산, 공주	대전시 근교 지역	근교 상업농단지
남부평야 농업지대	논산, 부여, 서천	금강 하류 지역	시설원예, 농식품가공
서부 준산간농업지대	청양, 홍성	서부 차령산맥 지역	특산물 재배
서해안 평야농업지대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해안 서북부 지역	경종작물 재배
북부 전원농업지대	연기, 천안, 아산, 예산	내륙 동북부 지역	과수, 축산산업

2. 시군별 특화 품목의 발굴

개방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선호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농업의 전략 작목 선정은 시장수요 및 소비자 기호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지역의 입지조건과 비교우위성을 검토한 후 유망 성장작목을 발굴하여 이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 국내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표 9〉에서 충남의 시군별 전략품목들을 보면 소득기여도와 생산성이 높은 시설채소 및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에 대응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과 타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된 작목을 시군별로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특화전략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9〉 시·군별 전략작목 현황

시군	상징품목	전략작목(10대작목)
천안	호도	오이, 배, 포도(참살, 콩, 팥, 사과, 배, 호도, 쌀, 느타리)
공주	밤	오이, 쌀, 표고(애호박, 수박, 딸기, 풋고추, 사과, 포도, 느타리)
보령	쌀	방울토마토, 양송이, 느타리(가을배추, 취나물, 오이, 수박, 가을무, 포도)
아산	쌀	오이, 배, 포도(수박, 쪽파, 사과, 복숭아, 표고, 느타리, 화훼)
서산	마늘	달래, 마늘(감자, 가을배추, 양배추, 오이, 딸기, 파리고추, 생강, 느타리)
논산	딸기	방울토마토, 딸기(쌀, 상추, 오이, 애호박, 참외, 수박, 사과, 포도)
금산	인삼	깻잎, 포도, 인삼(땅두릅, 수박, 딸기, 마늘, 사과, 배)
연기	배	오이, 배, 복숭아(참외, 수박, 딸기, 건고추, 포도, 느타리)
부여	수박	오이, 수박, 방울토마토(토마토, 딸기, 밤, 양송이, 표고, 느타리)
서천	느타리버섯	오이, 느타리(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단감, 쌀, 표고)
청양	구기자	토마토, 표고(오이, 수박, 건고추, 풋고추, 쌀, 느타리, 구기자)
홍성	딸기	취나물, 딸기, 방울토마토(콩, 가을배추, 오이, 수박, 영지, 한우, 양돈)

예산	사과	파리고추, 사과(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딸기, 건고추, 쪽파, 느타리)
태안	마늘	달래, 건고추, 마늘(콩, 생강, 참깨, 땅콩, 느타리, 화훼, 양돈)
당진	파리고추	쌀, 사과, 느타리(감자, 가을배추, 달래, 오이, 방울토마토, 파리고추, 쪽파)

자료: 지방자치시대 지역농업개발 심포지움, 농림 충남지역본부, 1997.

농산물 중에서 동일한 부류에 속해도 품목별로 생산의 증감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표 10>에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품목별 생산추이를 보면 시설채소, 양파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무, 고추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배추, 사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돼지고기, 우유의 생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에 한육우의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품목별로 소비자의 선호주기가 빨라지면서 농가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품목별로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0> 품목별 생산량 증감동향(1990년-2000년)

구분	증가품목	정체품목	감소품목
원예작물	시설채소, 양파,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화훼	무, 고추, 마늘	배추, 사과
특용작물	버섯	인삼	참깨, 땅콩, 담배
식량작물	감자	고구마, 쌀	보리, 콩, 옥수수
축산물	돼지, 우유	닭	한육우

자료: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농림부, 2001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라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충남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성장형 작목을 아래 <표 11>과 같이 제시하였다. 충남은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을 인접거리에 두고 있어 상업농 발전의 핵심조건인 교통입지의 편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최근 농업생산의 추이를 보면 시설 채소 중에서도 시설배추, 시설상추 등 엽·근채류가 소득상승률이 높고 소득기여도가 높은 유망 작목군으로 등장하고 있다. 충남은 현재 엽·근채류에 있어 경기도 다음의 2위의 주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시설 엽·근채류의 미래 시장성을 분석하고 경기도 농업동향을 벤치마킹사례로 삼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엽·근채류 품목들을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 11〉 충남의 유망 전략작목

구분	품목	육성방안	정책목표
식량작물	쌀	· 고품질 벼품종 도입 · 벼 재배면적의 규모화 · RPC 연합 유통시스템의 구축	고품질 브랜드화 및 전국1위 수준의 수취가격
시설채소	엽·근채류 (시설배추, 시설상추 등)	· 대단위 주산단지 조성 · 재배기술경영권설립 지원 · 산자유통의 대단위 시스템화	시장점유율 확대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과수	배, 사과	· 수출형 전업농으로 집중화 · 수출전문 과수단지로 육성	수출물량 비율의 증대 과수농가의 구조조정
축산	돼지, 닭, 젓소	· 대단위 고품질 축산단지의 조성 · 환경친화형 사양기술의 개발	규모화 전업농의 육성 수급예측모델의 개발
기타	인삼, 버섯류	· 지역의 명품특산물로 육성 · 전문재배단지의 조성	국제적 브랜드화 전략

충남 쌀은 전국 2위의 생산량 실적을 차지하고 있어 충남이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핵심 작목이다. 앞으로 쌀은 생산량보다는 품질이 쌀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을 보인다. 충남은 경기도와 비슷한 온대성 기후권에 속하여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다수확 품종 위주의 쌀 생산체제에서 고품질 쌀 생산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면 충남 쌀이 품질 면에서 국내 쌀 시장을 주도할 잠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충남은 전국적으로 2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본과 기술의 집약도가 높은 돼지, 닭 등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전망이다. 축산업 중 시장개방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한우농가의 경우 피해규모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개방화의 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대응전략을 신중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개방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영농구조로 더욱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 닭, 젓소는 충남의 핵심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실은 2000년 이후 공급과잉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다양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고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류가 기존의 과실수요를 대체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한·미 FTA 및 DDA 협상에 따라 국내소비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충남의 사과 생산량이 전국 4위, 배는 전국 2위의 생

산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재배면적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과원의 정리와 함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산업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산지유통시스템의 개혁

소비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선호행태를 보면 양보다는 질 위주로 바뀌고 있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만 하면 소득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재값을 받고 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유통환경을 보면 시설채소의 생산증가와 저장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절의 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의 하방경직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조직화된 생산자단체가 산지단계에서부터 포장, 예냉 및 예건, 저온저장 및 가공 등 산지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비지 대형유통할인점의 횡포에 대항하여 시장 교섭력 향상과 수취가격 제고를 유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저온유통시설의 보완은 물론 수송차량의 확충, 유통 전문인력의 양성, 선진국의 유통체계를 참고로 한 지역 고유의 유통지원체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지 유통의 대형화 추세에 대하여 산지에서도 품목별 유통조직의 광역화 및 지역간 연합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산지 연합유통조직은 지자체, 시군 회원조합의 출자에 의한 유통판매 전담 회사를 설립 후 전문경영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내 농산물 출하조직을 작목반단위 또는 시군단위에 국한하지 말고 몇 개의 시군을 한데 묶어 연합마케팅 조직으로 유통의 대형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당진, 아산, 보령에서는 시군간 연합체에 의하여 광역유통판매조직을 만들고 대단위 RPC 센터, 고품질 농산물 개발, 브랜드화 등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판매까지 일관된 체계로 관리되는 지역 농업클로스터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품목별로 광역화된 생산 집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의 가공산업, 학교와 연구소와 정부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맺는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지자체 및 연관 산업과의 호혜적인 연계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대상도 생산 유통 가공부문

을 포함한 농업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포함한 산업간 지역내 결합과 연계로 확대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농협 단위별로 조직된 산지공동출하조직은 대개 100억원 대 내외의 매출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로는 날로 대형화되는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어렵다. 적어도 1,000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연합 마케팅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적인 브랜드화, GAP의 조기 도입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충남지역이 비교우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국적인 시장에서 가격 및 물량 면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4.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미래에는 농업도 단순히 1차 농산물의 생산만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농업에도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즉 1차 농산물 + 2차 가공농산물 + 3차 관광체험 농업 = 6차 서비스 농업구조로의 개편이 지역농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의 서비스 산업화는 최근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운동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농촌의 농산물, 자연을 활용하여 서비스산업화로 나가는데 있어 첫째, 농촌 특유의 어메니티 자원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 농촌관광은 단순한 리조트 관광과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관광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관광도 수익성을 내야하는 사업이므로 비즈니스 지향적인 경영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충남 농촌은 그린투어리즘의 미래가 밝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충남권 특히 서해안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서해안에 인접한 서산, 태안, 당진, 보령, 서천지역은 수도권과 1-2시간 권내로 교통입지가 좋아지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대체관광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둘째, 충남의 농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금은 지역 농촌의 쾌적함과 자연 생태에 대한 어메니티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바닷가의 청정 경관과 농촌의 토속음식, 풍부한 해산물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충남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충남 농촌은 넉넉한 인심을 지닌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의 명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도시민이 농촌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고 도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마을 주변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시골스러움과 생태경관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의 오염과 훼손을 막아야 함은 물론 깨끗한 자연과 농촌스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농촌 주민들이 훈훈한 인심과 정성이 깃든 접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마을의 전통행사에 방문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들이 직접 농촌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 행사 및 전시물을 보여준다든가, 전통 특산물, 음식, 상차림 등도 그린투어의 대상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생을 가진 가족 및 학교단위의 수학 여행단은 농촌체험의 교육적인 효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 충남의 농촌관광단지 조성전략

구 분	개소	농촌관광의 대상지역
체험관광	7	갯벌(송석), 머드(대천), 일출(왜목), 낙조(안면도), 철새(간월도, 금강하구둑), 함상공원(삽교호)
레포츠관광	6	해수욕장(무창포, 춘장대, 만리포, 난지도), 요트(죽도), 워터파크(아산온천)
휴양관광	13	호수(용연, 예당, 신정호), 사찰(각원사, 태조산, 마곡사), 온천효도(천안, 마곡, 도림, 덕산), 역사문화(구드레, 곰나루, 공주문화), 먹거리(남당)
역사문화	4	근대문화거리(강경), 민속마을(외암), 순교(해미읍성), 옛길(사비길)
체험명소	3	갯벌(비인만), 낚시(신진도), 수문병교대식(공산성)
휴양명소	4	수목원(천리포), 휴양림(안면 자연휴양림, 갈대(신성리), 일출(마량리)
축제문화	3	모시(한산), 젓갈(광천, 강경), 인삼(금산)
특산물체험	2	도자기(계룡산 도예촌), 인삼캐기(금산)

자료 : 충남도정 신문, 2002. 10

5. 충남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농업부문이지만 역으로 개방화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길도 열어준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인당 경지면적이 미

국, 유럽 등 선진농업국에 비해 훨씬 작고 농산물 수출업체들도 대부분 영세한데다 세계적으로 경쟁할 만한 수출 품목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대규모 영농으로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기회로 역이용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면 수출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충남 농업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산업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토지면적 보다는 기술과 경영능력에 더 중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가격보다는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산업내 무역이 바람직한 수출경쟁력의 강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산업내 무역이란 품목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한다. 산업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품목부류라고 하더라도 품질과 가격 등의 차이가 나는 상품차별화와 가공도에 따라 중간재로 수입한 다음 가공 후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내 분업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산업내 분업은 같은 부류의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가공도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일어나므로 수직적 분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원료 농산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국가가 신선 농산물 또는 중간재 농산물을 수출하는 반면에 가공 기술이나 유통시스템이 발달한 국가가 원료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수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농산물이라도 수평적 분업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이라도 선진국간에 국제적으로 수평적 분업에 의한 산업내 무역추세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배는 지난해 28개국에 3,665만달러 어치가 팔려 나갔고, 특히 미국인들 사이에선 최고의 선물로 인식되고 있어 미국산 배와 차별화된 농산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 생산되는 배를 미국의 고가품시장에 수출하고 저스용 미국산 배를 싸게 수입하는 산업내 무역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배 수출단계에 GAP, 생산이력관리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고품질 안전이미지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농산물 수출이 주로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건강식품 선호 분위기가 일어남에 따라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해외시장에서 성공한 우리 농식품들은 고품질과 단일브랜드, 현지형 마케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친환경 먹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건강식품 등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산업내 무역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주요 도매상과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 등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 등이 중요하다.

충남은 2006년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130백만 불로 세워놓고 2010년까지 500백만불을 달성한다는 계획 하에 품질, 안전, 가격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으며, 생산 농민들의 수출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잘 안되어 있는데다, 생산과 유통 및 수출에 있어서 수직적·수평적 물류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환율 하락으로 농산물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충남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농업단지의 규모화 전문화를 달성하여 기본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컨설팅 실시, 전담 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서비스 제공, 물류비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해외시장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고 국제 농산물박람회나 식품전시회 등의 참가방식을 개선하여 충남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지의 예냉·선별·포장·수송 등 수출물류 시스템을 일관적으로 연계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인 농산물수출 보험, 관세 환급, 자조금 제도 등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산물 수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화시켜야 한다. 특히 충남 농산물의 수출확대 과정에서 걸림돌이자 현안 과제인 수출물류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물류센터운영, 수출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체계의 시스템화, 수출농산물의 물류정보화, 소형 냉장 컨테이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농업 개방화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범세계적인 시장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생존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 농업의 개방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생산위주의 농업관으로는 풀기 어려운 농업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를 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농업의 경쟁력은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종합산업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첨단 농업기술의 개발 및 경영·정보의 활용 등 지식이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충남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효율화하는 한편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경제의 안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화 속에서 충남농업이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권역별 입지특성에 맞는 농업지대를 구축하고 저비용·고효율 영농구조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둘째, 시군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발굴하여 생산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일정규모의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농업 우수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산물 산지유통의 개선과 물류 효율화 극대, 생산·출하시스템의 정비, 소매유통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농외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충남의 양호한 입지성과 농촌 어메니티를 결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화를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선진국 농업국가의 소비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수출전진기지를 육성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개방화로 흔들리는 농업과 농촌을 재건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지역 농업인, 정부, 농산업계가 농업과 농촌의 실질적인 생존을 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농업을 대외 지향적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강화하되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한편 소득과 복지,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농가경제의 안정화와 농촌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충남 농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농업도 신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개발, 종자산업의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와 투자확대가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추상적인 정책구호가 아닌 세밀한 분야까지 연구와 투자, 그리고 지원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농업인 등 관련 경제주체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용대, 「충남 농수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6
- 경기농정포럼, 「경기도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 경기농정포럼 세미나 보고서 03, 1999.
- 김동민, 최세균, 「수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P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12
- 김완배 등, 「수출전략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2002.
- 김철호,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충남지역농업사례」 연구보고 17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농림부, 「농촌농업종합대책」 2004, 2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 년도
- 농협 충남지역본부, 「충남지역농업개발방향과 농민숙원사업」 1991.
- 농협 충남지역본부, 「지방자치시대 지역농업개발 심포지움」 1997.
- 농협 충남지역본부, 「충남농업의 시군별 특성화 발전방안」 2005.
- 박경, 신동호, 「한미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 효과와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6. 12.
- 어명근외,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67, 2003.
-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충남농업의 발전방향」 1994. 11.
-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지역농업 특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1997. 11
- 한우호, 「충남의 시군별 성장잠재력 분석 및 특성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2